



[경제종합]
현대차
친환경경차 라인업 확대
2045년 탄소중립 선언
03



Economy

코스피 3203.33 (+2.27)	코스닥 1052.96 (-0.89)
금리 (미국 3년) 1.459 (+0.022)	환율 (원/달러) 1156.50 (-0.50) (6일)

서민은 '물가걱정' 中企는 '돈걱정' 다가오는 한가위, 국민들은 '울상'

추석 민생경제

#.주부 김모씨(서울시 동대문구)는 최근 집근처 전통시장에서 오랜만에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면서 깜짝 놀랐다. 평소 같았으면 한 단에 2000~3000원하던 시금치가 7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얼마전 분식집에서 김밥을 몇 줄 시켰다가 '시금치 대신 오이를 대신 드립니다'란 메모를 본 것이 생각났다. 자주 이용하는 M 온라인마켓에서 시금치를 검색했더니 250g 한 단에 7300원, 친환경 시금치는 100g에 4000원씩 팔고 있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경기 파주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사장은 최근 돈을 빌리러 또다시 주거래 은행을 찾았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뚝 떨어졌지만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줄 '떡값'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난번 대출 때보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내야했다. 이 사장은 울며겨자먹기로 8000만 원을 융통했다.



가공식품 출고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6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시금치 1kg 소매가격 평균 3월 4849원→1만7298원

추석 차례상 비용 5~6%↑ 서울 휘발윳값 1726원 달해

추석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치솟는 '밥상 물가'에, 중소기업들은 '돈 걱정'에 울상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9월 초 현재 시금치 1kg당 소매가격은 1만7298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지난 3월까지만해도 1kg에 4849원하던 시금치다. 8월엔 2만1441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연평균 가격은 7289원이었다. 3~4월 800원대에 머물렀던 상추는 9월 들어선 1909원(100g)까지 올랐다. 지난해 연평균 2067원(100g)하던 삼겹살(국산냉장)은 이달 들어 2700원대까지 상승했다.

계란값도 1년 전보다 20% 가량 올랐다. 지난해 9월 당시 5500원대(중품·30개 기준)이던 가격이 이달엔 6600~6700원에 형성돼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시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내놓은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6~7인용)은 전통시장이 22만4181원, 대형마트가 28만361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5~6% 오른 수준이다. 떡거리 뿐만 아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리터당 1300원(전국)~1400원(서울)대까지 하락했던 휘발유는 이날 현재 전국이 1642원, 서울이 1726원까지 올랐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2015년=100)로 전월보다 0.6%, 1년 전에 비해선 2.6% 올랐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6회 물류&e모빌리티 포럼'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물류·모빌리티 융합 가속화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비대면 소비입니다. 가공·신선식품 등 먹거리부터 가구나 전자제품 등 내구재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해 가정, 사무실에서 받는 비대면 경제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전 월평균 12조~13조원 수준에 그쳤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최근엔 15조~16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4분기 25.6%에서 올해 2·4분기엔 28.1%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앞당기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유통의 경계선은 점점 사라지고, 이를 잇는 물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물류와 모빌리티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간 제조·유통·물류 분야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이같은 시너지 창출 모델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6회 물류&e모빌리티 포럼'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물류
-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14:00~17:00
-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 기조강연 :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 한국경영학회장)
- 강연 1~3 : CJ대한통운, 쿠팡, 우아한사람들(배달의민족)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온라인 접속 : 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공지
- 문의 : 제6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사무국(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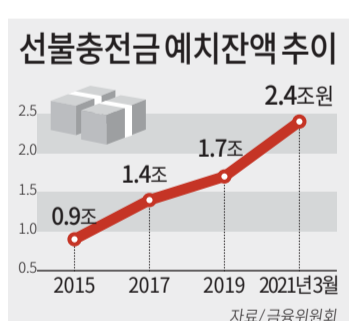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54조 선불결제시장... 소비자 보호대책 '뒷짐'

금융 이슈리포트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결제 리스크 수면위 소비자 보호 '권고' 그쳐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결제시장의 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미리 충전한 자금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불금 발행·관리서비스다. 교통카드 티머니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모두 선불전자금융업에 속한다. 문제는 사실상 '예금'에 가까운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지급불능 상태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나 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액, 54조원 규모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불충전결제서비스를 3년여 동안 운영했다. 그사이 회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상품권)가 발행됐다. 머지플러스는 간편결제 사용

증가에 힘입어 단기간 급성장할 수 있었다. 간편결제는 도입 당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반 서비스 위주로 운영됐지만 점차 선불충전 기반 서비스로 확대됐다.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전체 결제에서 선불충전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7.6%에서 지난해 27.6%까지 증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올해 1분기 53조99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28% 늘었다. 이 때문에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은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선 미사용 잔액을 포함한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현재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달 13일 249건에서 19일 누적 기준 992건까지 늘었다. ◆카드사, 머지포인트 대금청구 보류 머지머니 판매 중단·사용처 축소로 '머지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의 책임론도 함께 대두됐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머지포인트 연간구독권 구매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고 KB국민카드는 올 하반기 머지포인트 PLCC(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었다. 국민카드는 환불 사태 이후 PLC C 발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드사가 기본 검증도 없이 제휴를 맺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면에 계속> /권소원 기자 think@



LX하우시스, 한샘 인수전 참여

PEF에 3000억 출자 계획 만, 인수 주체인 IMM 측에서 조만간 한샘 공동 인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출자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한샘 인수 참여 타진은 고부가가치 견장재 사업 역량과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털 인테리어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길 원하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측 경선 판세 관련 "1차 슈퍼 워크 과반 목표" /사진 뉴시스
▲ 美, 주한미군 감축 거론에 軍 "논의 안해"

▲ 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 고발... '검찰권 사유화' 주장
▲ 충청도 대패 이낙연, 호남서 결기 다져



▲ 국민의힘, 당 예비 대선 후보 면접 질문 공모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발표... '주 4일제·상병수당' /사진 뉴시스